

# 주거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비교

## Housing Expenditure Pattern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양 세 화\* · 오 찬 옥\*\*  
Yang, Sehwa · Oh, Chanoh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ousing expenditure pattern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The raw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1996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final sample was 12,007 households.

Generally, elderly households tended to spend less on housing expenditure than non-elderly ones. Also, the effects of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housing expenditu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effected on housing expenditure of both two households were household income, household size, and location of the residence. Occupation, education, and sex of the head were household characteristics which had more influences on housing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 I. 서론

의학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세계의 노인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로 간주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1989년에 이미 11.5%를 넘었으며, 한국은 1990년에 4.98%, 1995년에 5.92%이던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7.3%(통계청, 2001)로 집계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과거와 달리 미래의 노인들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높고 생활의욕이 왕성할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새로운

계층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의 약화와 노인 스스로의 독립된 생활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면서 노인 부부나 배우자 사망 후 혼자 가구를 이루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노인들의 신체적 노화를 비롯한 심리적, 경제적 제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거 개발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인주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주거학연구회, 1999). 왜냐하면 노인에게 있어서 주택은 은퇴 이후 일상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또 나이가 들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 기능이 약화되므로 노인에게 맞는 주거 환경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노년의 삶의 질을 다룬 한 선행 연구(정영숙 외, 1999)에서도 주거환경과 주생

\* 정회원,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부교수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활이 경제생활을 비롯한 다른 영역보다 노인들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노인 주거 문제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주로 거주형태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를 조사하거나 또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 주거 계획에 필요한 물리적, 사회·심리적 요구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노인들의 재정 상태나 이를 토대로 한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은 노인 주거의 계획이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명은 노인 주거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다(오찬옥 외, 2000).

이에 반해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현실적으로 주거비의 개념 규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진미윤, 1998; 양세화 외, 1999), 주거비가 가계소비지출 연구에서 지출 비목의 하나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가계의 주거비를 다룬 연구가 활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도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가계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성영애 외, 1997; 오찬옥 외, 2000; Rubin 외, 1997) 이에 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을 비교하고 다양한 가계 특성이 주거비 지출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가계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주거비 지출 패턴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며, 노인을 위한 주거 계획이나 관련 산업의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정보는 일반 가계의 소비지출행동 전반을 다룬 연구나(김기옥, 이승신, 1990; 양세정, 1996; 주인숙 외, 1997; 최은숙, 1986 등) 주거비 지출만을 별도로 다룬 연

구(양세화 외, 1999; 양세화 외, 2000)에서 가구주의 연령을 중요 변수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는 해 주지만 노인가계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노인가계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세부 측면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성영애, 양세정, 1997; 오찬옥 외, 2000). 이러한 지적은 노인가계도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Quinn(1987)의 문제 제기와도 일맥 상통한다.

성영애와 양세정(1997)의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분석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보다 총주거비의 세부 비목인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사·가구용품비에 대한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광열·수도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광열·수도비는 필수적인 지출 항목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 관리비, 기타 주거비등을 포함하는 주거비에서는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보였다. 한편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설명력은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 요인이나 요인의 영향력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찬옥 외(2000)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의 노인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비 관련 지출을 가계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노인가계의 총주거비 부담율은 약 11.86%로 도시 근로자 가계의 주거비 부담율 8.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목별 지출에서는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거비, 가구집기·가구용품비의 순이었다. 관련 변인 검증에서는 대부분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bin과 Nieswiadomy(1997)는 미국 노인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 자료인 1972-73년도와 1986-87년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를 비교·분석하였다. 노인가계는 부부, 독거남성, 독거여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노인들은 주거를 식품이나 의복보다 더 필수적인 항목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주거비 지출 패턴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은 총지출에서 주거 관련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독거여성은 총지출의 약 40%를 주거에 할당하고 있어 30% 이하로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독거남성이나 부부에 비해 주거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독거여성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Winter, et al.(1989)은 1971-79년에 수집된 The Retirement History Study(RHS)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노인들의 주거비 지출은 1971년-75년 사이에는 감소하다가 75-79년 사이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노인가계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나 건강 상태는 주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소득, 고학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백인 노인 부부 집단이 주거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Williams와 Zhou(1997)는 1991 CES 자료 분석을 통해 주거비 지출이 노인가계의 총소비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주었다. 즉 비록 용자금 상황이 끝났다 해도 세금이나 수선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이 되며 더욱이 은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총지출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Ⅲ. 자료 및 분석방법

#### 1. 자료

본 연구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본 자료는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전국의 비농가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수입과 지출, 연간 가계소득, 저축/부채, 내구재 보유 현황 등 가계의 생활수준 및 실태에 관한 포괄적 자료를 포함한다. 주요 인구통계지표에 따라 총화 추출한 30,000가계를 조사대상 목표로 하였으며,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에 관한 자료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가계부기장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였고 그 밖의 자료는 면접타계식으로 조사된 것이다(통계청, 1997).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된 24,290가구 중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가 가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총 분석대상 가계는 12,007가구였다. 사용된 원자료는 일인 단독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가계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노인가계 분류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60세 미만인 경우를 비노인가계로 분류하였다. 사용된 분석대상 가구중 노인가계는 2,158가구로 17.97%, 비노인가계는 9,849가구로 82.03%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을 비교하려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연구문제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규모는 어떠하며, 두 집단간에 있어 지출규모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노인가계의 어떤 특성이 주거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노인가계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는 9개의 소비지출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비관련 비목으로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등 3개 항목을 추출하였다(표 1). 총주거비는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주거비 지출비목의 구체적 정의

지출비목	정의
총주거비 (Y)	$y_1 + y_2 + y_3$
주거비 ( $y_1$ )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광열·수도 ( $y_2$ )	수도료, 전기료, 연료, 공공주택난방비
가구집기·가사용품 ( $y_3$ )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가사서비스 등

<연구문제 1>을 위하여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총주거비를 포함한 네 개의 주거비관련 변수에 대해 평균치를 산출하고, 두 집단간 수치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하여는 주거비지출관련 추정모델이 설정되었으며, 모델 형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근거하였다. 첫째,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성영애 외, 1997; 오찬옥 외, 2000 등)를 참조하였으며, 둘째, 노인가계의 주거비 소비지출행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반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된 관련변인을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원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총소비지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등이었다.

실증연구 모델은 다음과 같다.

$$C_j = b_0 + b_1 \text{CON} + b_2 \text{CON}^2 + b_3 \text{SIZE} + b_4 \text{AGE} + b_5 \text{AGE}^2 + b_6 \text{OCC1} + b_7 \text{OCC2} + b_8 \text{OCC3} + b_9 \text{ED1} + b_{10} \text{ED2} + b_{11} \text{ED3} + b_{12} \text{ED4} + b_{13} \text{CITY1} + b_{14} \text{CITY2} + b_{15} \text{SEX} + e_j$$

이때  $C_j$ 는 주거비 비목(j)에 대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며, j는 총주거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이다. CON은 가계의 월평균 총소비지출액으로, 본 모형에서는 가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주는 변수로 총소비지출을 이용하였다. 이는 총소비지출이 항상소득의 대응변수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Dardis, Derrick & Leheld, 1981; 문숙재 & 정순희, 1995), 또한 자료 이용상의 현실적 제약으로 가구소비실태의 원자료는 비근로자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자료의 신빙성부족으로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변수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C_j$ 와 CON의 관계는 소비함수의 Engel함수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차함수 형태로 적용하였다(Dardis, Derrick & Leheld, 1981; 문숙재, 정순희, 1995; 최현자, 1996 등). SIZE는 가구원수를 연속변수의 형태로 사용하였으며, AGE 역시 가구주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되, AGE와 AGE제곱의 형태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소비지출규모는 가구주 연령과 함께 일정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양세정, 이윤금, 1997).

이 밖에 가구주 직업, 가구주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구주 성별 등의 변수는 가변수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OCC1, OCC2, 및 OCC3은 가구주의 직업을 나타내주는 가변수로 기준집단은 무직가

구이며, OCC1, OCC2, OCC3는 각각 사무직, 생산직, 사업자가구를 나타낸다. ED1, ED2, ED3 및 ED4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주는 가변수로 기준이 되는 집단은 국졸미만이며 ED1은 국졸, ED2는 중졸, ED3는 고졸, ED4는 대졸을 나타낸다. CITY1, CITY2는 거주지역을 나타내는 가변수로 기준집단은 중소도시이며, CITY1은 서울 거주, CITY2는 5개 광역시거주를 나타낸다. SEX는 성별(기준집단:여자)을 나타내는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b_0$ 는 상수항이며,  $b_1$ - $b_{16}$ 은 회귀계수,  $\epsilon_t$ 는 오차항이다.

상기모형은 OLS방법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측정

되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집단 간에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how-test를 실시하였다.<sup>1)</sup> 이상의 모든 전산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두, 즉 월평균 소득, 총소비지출,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직업, 거주 지역, 가구주 성별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표 2).

월평균 소득은 노인가계가 135만원인데 반해

표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비교

	전체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차이검증
월평균소득a (원)	2,198,688	1,348,544	2,384,962	t=774.56**
총소비지출 (원)	1,387,954	935,305	1,487,133	t=454.40**
평균가구원수 (인)	3.57	2.32	3.85	t=2587.46**
가구원수(%) :				$\chi^2=3047.51^{**}$
1인	7.43	26.78	3.19	
2인	16.29	39.99	11.10	
3인	20.31	18.63	20.68	
4인	33.81	7.88	39.49	
5인	14.57	3.57	16.99	
6인 이상	7.59	3.15	8.56	
평균가구주연령 (세)	47.87	67.16	43.64	t=13347.09**
가구주 연령(%) :				$\chi^2=12007.00^{**}$
20대	5.37	0.00	6.55	
30대	22.52	0.00	27.45	
40대	30.02	0.00	36.59	
50대	24.12	0.00	29.40	
60대	12.23	68.07	0.00	
70대 이상	5.74	31.93	0.00	
가구주 교육수준(%) :				$\chi^2=2718.99^{**}$
무학	5.84	26.55	1.30	
초졸	16.26	30.68	13.10	
중졸	16.87	12.70	17.78	
고졸	37.17	16.13	41.78	
대졸	23.87	13.95	26.04	
가구주 직업(%) :				$\chi^2=3018.75^{**}$
사무직	22.99	7.32	26.42	
생산직	32.99	21.46	35.52	
사업자	28.28	16.73	30.81	
무직	15.75	54.49	7.26	
거주지역(%) :				$\chi^2=73.025^{**}$
서울	10.67	8.29	11.19	
광역시	40.13	34.24	41.42	
중소도시	49.20	57.46	47.40	
가구주 성별(%) :				$\chi^2=557.389^{**}$
여성	19.18	37.30	15.21	
남성	80.82	62.70	84.79	

\*\*p < .01

a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는 자료의 신빙성 문제로 인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연간소득에 응답한 자료는 제공됨. 따라서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은 가계의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분석대상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한 참고적 정보를 얻고자 하였음.

비노인가계는 238만원으로 비노인가계가 56.7%정도 많았으며, 총소비지출도 노인가계는 94만원, 비노인가계는 149만원으로 비노인가계가 63.1%정도 많았다. 가구원수는 노인가계는 평균 2.3인으로 2인인 경우와 1인인 경우가 많은 반면, 비노인가계는 평균 3.9인으로 4인인 경우와 3인인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 연령은 노인가계가 평균 67.2세로 60대가 68%, 70대 이상이 32%이었고,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평균 43.6세로, 40대와 50대가 65%를 차지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노인가계의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이나 무학인 경우가 57%인 반면, 비노인가계는 고졸이나 대졸이 68%이었으며, 가구주 직업은 노인가계는 무직인 경우가 54.5%인데 반해 비노인가계는 생산직과 사업자인 경우가 각각 35.5%,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두 집단 모두 중소도시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광역시, 서울의 순이었으며, 가구주 성별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남성인 경우가 많았으나, 노인가계의 경우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37.3%로 비노인가계의 15.2% 보다 많았다.

#### IV. 결과분석

#####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 비교

표3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 규모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보다 주거비와 관련된 모든 비목에서 지출을 적게 하고 있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총 주거비 지출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노인가계는 월 18만원 가량을 총주거비로 지출한 반면, 노인가계는 15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 비목별로 보면, 주거비는 노인가계가 45,000원, 비노인가계가 46,000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광열·수도비는 노인가계가 66,000원, 비노인가계가 75,000원으로 비노인가계가 9만원정도 많이 지출하였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노인가계가 43,000원, 비노인가계가 63,000원으로 비노인가계가 2만원정도 많이 지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 관련요인

앞에서는 노인가계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비노인가계와 주거비 지출을 비교하였다. 본 절에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가계특성에 따라 주거비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 회귀분석과 Chow-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계특성이 주거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비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Chow-test 결과, 모든 비목에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간에 가계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표4).

총주거비 및 3개 비목에 대한 연구모형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포함된 가계의 특성들은 각 지출비 분산의 8%에서 35%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며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목에서 노인가계의 지출비목에 대한 설명력이 비노인가계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표 3.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비교

(단위: 원)

	전체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차이검증 (t값)
총주거비	178,845	153,448	184,410	14.67**
주거비	46,199	44,752	46,516	0.09
광열·수도	73,057	65,644	74,681	61.35**
가구집기·가사용품	59,589	43,053	63,213	16.04**

\* p<.01

표 4.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특성의 주거비에의 영향 비교

	총주거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총소비지출	0.191**	0.137**	0.099**	0.045**	0.037**	0.015**	0.054**	0.076**
총소비지출계급	1.220E-9	5.258E-9**	-2.581E-9	2.877E-9**	-3.828E-9**	-9.323E-10**	7.629E-9**	3.314E-9**
가구원 수	-14903*	-13874*	-13602*	-12092*	2696*	6433*	-3997	-8214*
가구주 나이	10096	-3854	8442	2319	2522	-1700**	-867	-4474*
가구주나이계급	-55	25	-63	-36	-14	27**	22	35
가구주: 사무직	-132092**	-17264	-70548**	-1798	-9559*	-2591	-51985**	-12876
직업 생산직	-10777	10499	-267	3702	-6584*	-1455	-3926	8252
사업자	-14788	1457	-27414	1588	3974	3668	8652	-3798
가구주: 초졸	-1660	10210	-28816	6325	11733*	6806	15423	-2922
교육수준 중졸	16413	-10961	-194	-650	15232**	7665	1374	-17976
고졸	11733	-8231	-52681**	7625	13376**	4592	51037**	-20448
대졸	-17439	-31425	-22995	-12066	10860*	6063	-5304	-25423
거주지역: 서울	78580**	-38053**	51706*	4884	-17889**	-19861**	44763*	-23076**
광역시	-933	-7279	3935	10818*	-8938**	-8160**	4070	-9937*
가구주성별: 남성	-30154*	-11735	-13318	-10676	2610	1877	-19446*	-2936
상수항	-392603	165664*	-256570	-11752	-79769	51062**	-56259	126355**
F-value	78.325**	313.072**	16.648**	68.870**	31.900**	83.123**	74.080**	240.357**
adjusted R <sup>2</sup>	0.3497	0.3222	0.0981	0.0937	0.1769	0.1112	0.3370	0.2672
Chow-test	5.1426**		3.538**		9.1728**		4.6813**	

\* p<.05 \*\*p<.01

나타나고 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에서 총주거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주거비에 대한 설명력은 가장 낮았다. 주거비 지출에 대한 가계특성의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주거비 지출이 공동주택관리비나 주택설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주거의 질 같은 주거특성 변인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노인가계에 비해 비노인가계에서 다소 낮은 설명력이 나타난 것은 이들 집단의 경우 주거비 관련 지출이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Chow-test 결과 모든 비목에서 가계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가계의 특성이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주거비 관련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1) 총주거비

독립변수로 포함된 가계특성들의 총주거비에 대한 설명력은 노인가계의 경우 약 35%, 비노인가계의 경우 32.2%로 큰 차이는 없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총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총주거비는 증가하였으며, 가구원수가 감소함에 따라 총주거비가 증가하였다.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총주거비 지출이 많았으며,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중소도시인 경우보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보다 총주거비 지출이 많았다. 한편 비노인가계의 경우 거주지역의 영향이 노인가계와 반대 현상을 보였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총주거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거비

앞에서도 진술하였듯이, 주거비의 세부 항목이 공동주택관리비나 주택설비 및 수선비 등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주거특성이 제외된 가계특성만

에 의한 설명력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가장 낮다. 그러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은 가계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 적어질수록, 무직의 가구주가 사무직인 경우보다, 무학인 가구주가 고졸인 경우보다, 그리고 중소도시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노인가계의 경우에는 총주거비와 가구원수의 영향은 노인가계와 동일하였으나, 그 밖의 유의미한 설명요인은 광역시 거주가 유일하였다. 즉 비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 감소할수록, 중소도시보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3) 광열·수도비

총주거비나 주거비에 비해 광열·수도비의 경우 가계특성들의 설명력은 노인가계가 18%, 비노인가계가 11%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노인가계의 광열·수도비 지출이 비노인가계에 비해 가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이 보다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각 가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도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요인을 더욱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총소비지출, 가구원수, 그리고 거주지역의 영향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총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서울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광열·수도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생산직인 경우가 무직인 경우보다, 가구주가 무학일 경우 광열·수도비 지출이 적은 반면,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가구주가 젊을수록 광열·수도비 지출이 많았다.

### 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가계특성에 의한 설명력은 총주거비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세부 비

목 중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집기·가사용품 지출비 분산의 약 34%가량이 가계특성에 의해 설명되었는데 이는 주거비(약 10%)의 3.5배, 광열·수도비(약 18%)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비노인가계의 경우에도 약 27%로 주거비(약 9%)나 광열·수도비(약 11%)의 2배 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 총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은 많았다. 그러나 총소비지출을 제외한 다른 가계특성의 영향력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노인가계의 경우 무직인 가구주가 사무직인 경우보다, 고졸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무학인 경우보다, 중소도시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여성 가구주인 경우 가구집기·가사용품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주가 젊을수록,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이 많았다.

## 3. 주거비 지출 탄력성

총주거비와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등 3개 세부 비목별 소비지출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탄력계수를 산출하고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두 집단은 총주거비 및 모든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탄력성의 절대 크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5).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주거비를 제외한 총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 더 큰 소비지출탄력성을 보여 노인가계가 이들 비목에 대한 욕구가 간절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주거비에서는 노인가계의 탄력성이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계의 경우 총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주거비 지출 효과는 덜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열·수도비의 탄력계수는 두 집단 모두 1이하로 나타나 집단에 관계없이



표 5.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탄력성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차이검증 (t값)
총주거비	0.904	0.802	177.559**
주거비	1.911	1.999	-25.207**
광열·수도비	0.474	0.286	302.99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433	1.353	39.219**

\*\* p<.01

필수비목임을 시사하고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인가계는 주거비의 지출 규모와 구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계특성의 영향력에 있어 비노인가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주거비 지출규모는 노인가계가 월평균 153,448원, 비노인가계가 184,410원으로 노인가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 지출 규모를 보면 주거비를 제외한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지출에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주거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에서 노인가계가 지출을 적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주거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규모나 용이한 유지관리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주거비를 제외한 총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 더 큰 소비지출탄력성을 보여 노인가계가 이들 비목에 대한 욕구가 간절함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주거비에서는 노인가계의 탄력성이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주거비 지출 효과가 덜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열·수도비의 탄력

계수는 두 집단 모두 1이하로 나타나 집단에 관계없이 필수비목임을 시사하고 있다.

세째, 주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가계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비목별 영향 요인이나 요인의 영향력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에 포함된 가계특성의 설명력은 총주거비 및 3개 세부 비목 모두에서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를 위한 주거계획이나 관련 산업, 또는 정책 수립에 있어 가구주의 직업이나 교육정도, 성별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가계의 특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아울러 노인가계를 위한 차별화된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주

1. Chow-test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두 개의 집단을 같은 회귀식으로 구했을 경우 각 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서로 다른지 검증해 준다 (Koutsoyiannis, 1977).

$$F^* = \frac{[\sum e_p^2 - (\sum e_1^2 + \sum e_2^2)]/K}{(\sum e_1^2 + \sum e_2^2)/(n_1 + n_2 - 2K)} \sim F(K, n_1 + n_2 - 2K)$$

$\sum e_p^2$  = 전체집단의 자승합

$\sum e_1^2$  = 집단1의 자승합

$\sum e_2^2$  = 집단2의 자승합

K = 독립변수의 수+1

n1 = 집단1의 수

n2 = 집단2의 수

## 참 고 문 헌

1. 문숙재, 정순희(1995). 소비지출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 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6(2), 53-65.
2. 성영애,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3. 양세화, 오찬욱, 양세정(1999). 가계특성과 주거비지출: 근로자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10(2), 235-245.
4.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8(2), 81-101.
5. 오찬욱, 양세화, 양세정(2000).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0, 47-60.
6. 이선형, 이연숙(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2), 31-43.
7. 정영숙, 한성덕, 박충선(1999). 주거만족도와 노년의 삶의 질-노인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소비문화연구, 2(1), 85-100.
8. 주거학연구회(1999). 새로 쓰는 주거문화. 서울: 교문사.
9. 진미윤(1998). 도시 근로자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6(2), 33-60.
10.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11. 통계청(1997).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2. 통계청(200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13. Dardis, R., Derrick, F. & Lehfel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2.
14. Horton, S. W. & Hafstrom, J. L.(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92-303.
15. Koutsoyiannis, A.(1977). Theory of Econometrics, 2nd ed. Macmillan Press Ltd.: London.
16. Rubin, R. & Nieswiadomy, M.(1997). Expenditures of Older Americans. Praeger Publishers: Westport, CT..
17. Williams, F. L. & Zhou, H.(1997). Income and expenditures in two phases of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75-82.
18. Winter, M., Morris, E. W., Bivens, G. E. & Jakubbczak, M.(1989).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s in income, assets, and expenditures among older Americans. Final report to the AARP Andrus Foundation.